

월간 주요 이슈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 8. 13.)

글로벌 섬유패션 강국으로 재도약 추진

-산업부,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

-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 친환경 밸류체인으로 전환, 섬유패션에 AI 확산 -

- 2030년, 산업용·친환경 섬유 글로벌 점유율 확대(2%→10%) 목표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월 13일(화) 우리 섬유패션산업의현안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은 ▲ 산업용 섬유시장의 급속한 성장 ▲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친환경 전환 요구 ▲ 제품 기획·생산·유통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금번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산업부는 ①첨단 산업용 섬유육성(첨단 산업용 섬유 핵심기술 확보, 산업용 섬유 수요 창출 지원, 산업용 섬유 사업화 기반 강화), ②섬유패션 밸류체인의 친환경 전환(글로벌 수준의 친환경 섬유소재 기술개발, 친환경·저탄소 생산 공정으로 전환 지원, 자원 순환형 섬유패션산업 기반 구축), ③AI·디지털 적용 확산(섬유패션 기획·디자인·생산에 AI 기술 적용 확대, 제조 현장의 자동화 및 지능화, 패션테크 新시장 선점), ④섬유패션산업 기반 강화(현장 생산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수출역량 제고 및 내수시장 진출)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2030년까지 산업용·친환경 섬유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현재2~3%)하고 디지털 전환 수준을 60%(현재 35%)까지 높임으로써 섬유패션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안덕근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섬유패션산업은 6만개의 기업이 44조원을 생산하고, 26만명을 직접 고용하며 50만명 이상이 연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민생산업이며,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미래산업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